삼일교회 GBS 교재 "고린도교회" 2012년 12월 19일

고린도전서 I (고전 I : I ~ 9)

들어가기 왜 고린도전서 강해가 중요할까요?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위치는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고린도교회가 만난 상황과 복사판처럼 일치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러보기 고린도전서는 이 시대에 세워야할 교회의 모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교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그 특성상 재정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부요했으며 빈부격차 또한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는 약 600미터 높이의 언덕에 세워진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들이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교합을 함으로 신과 접촉을 한다는 신학의 논리를 만들어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바울이 아덴에 머물다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행 18:1,2) 바울은 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아덴에 머물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행17:16) "격분"은 바울이 화를 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들여 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 속에 들이 밀어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말 못하는 우상들이 가로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과 변론을 벌이다 쫓겨나다시피 하여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행17:16~18:1) 즉 사도 바울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이 아니가, 상황에 떠밀려서 고린도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행 18:2) 이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 고린도로 쫓겨와 바울과 만나 고린도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Q : 바울이 이전 사역지에서 쫓겨난 곳은 어디이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행 17:16~18:1) 또한 고린도교회 설립의 동역자는 누구이며 쫓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행 18:2~3) 말씀을 읽고 바울의 고린도교회의 설립배경에 대해 정리하며 발표해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고전1:1) 바울은 왜 자신을 구지 "사도"라고 소개할까요? 고린도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에게 배웠거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과 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의 사도직 기원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방을 위해서 부른 종이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바울을 사도로 부릅니다.(행9:1-19)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이유는 권세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Q :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의 사도직 기원은 어디에서 찾

을 수 있습니까?(행9:1~9)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강조할까요?(고전1:1)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후,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고전 1:2) 한 지역 교회가 지나치게 개교회주의로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교회'로서 공회라는 의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둘째는 삼일교회와 같은 각각의 '지역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에 대한 개념을 모두 견지해야 합니다.

Q :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고전1:2) 교회의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하며 답변해봅시다,

그래서 한 성도와 한 교회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하여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망가져 기준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회복하려면 고린도교회의 실패와 과거 한국 교회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 카피하고 있는 미국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 교회의 성공을 성도들의 머릿수와 재정으로 판가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설교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 사람이 복음적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스타 목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기업의 경영 논리를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관심은 철저히 청중의 필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출발점은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청중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Q :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답변하고 설교를 들을 때의 바른 태도를 확인해봅시다,(행17:11)

나오기 고린도 교회도 도시의 분위기를 따라 성공주의 복음, 효율, 효과 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런 비복음적인 문화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교회의 원형을 전합니다.

▶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공주의 복음의 모습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말해봅시다, 또한 어떻게 그러한 모습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 나누어봅시다,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팀이나 목장 또는 소그룹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발표해봅시다,

기도 : 삼일교회의 미래와 담임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
체육대회(6월6일) 하나됨과 안전, 건강과 기쁨을 위해
특별새벽기도회(6월둘째주~셋째주)와 여름선교를 위해
제자훈련반과 각 학교를 위해
주일학교 와 각 공동체 모임을 위해